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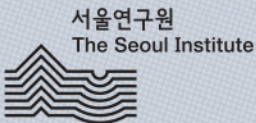
2014-CR-22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4-21

사라져 가는 서울 지명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서촌을 중심으로

박민영



2014-CR-22

사라져 가는 서울 지명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서촌을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	박민영	가거지지 연구소 소장
연구원	김성연	가거지지 연구소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서울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2014년 1월 1일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으로 기존 지명(동명) 사용 중단
-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 도시 유민의 자기 모멸감, 오래된 지명에 대한 친근감 상실 등으로 제기되는 도로명 주소 문제
- 1910년대 일제의 주소 체계 이전의 한국 고유의 한글 지명에 관한 관심
- 조선의 한양 천도와 함께 오늘날까지 약 600년 동안 서울 역사의 중심이 된 종로, 그 중에서도 비교적 연구 및 조사가 부족한 서촌 지역의 고유 지명에 관한 관심

1.2 내용 및 방법

- 지역을 상징하는 동명과 역사성을 가진 지명을 발굴하여 상업시설의 명칭으로 되살리는 ‘서촌 간판 작명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지명과 도로명 주소 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 면담 조사를 통해 지명의 역사와 현황을 조사

1.2.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삼국시대에서 2014년 1월 1일 전면 실행된 도로명 주

소 제도까지의 주소 체계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서촌 지역의 인물, 지명 키워드 도출

- 공간적 범위: 동쪽으로는 경복궁 서측, 서쪽과 북쪽으로는 인왕산로와 창의문로, 남쪽으로는 사직로 북단, 동쪽으로는 창의문로와 경복궁을 경계로 하는 지역으로 함. 2010년 수립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확장하였음.
- 내용적 범위: 서촌의 지명 유래 및 키워드 발굴 및 활용에 중점

1.2.2 주요 연구과제

-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서촌 고유의 지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2 한국 주소 체계의 변화

- 조선시대 이전의 주소 체계
- 조선시대 주소 체계
- 일제강점기 주소 체계
- 광복 이후 주소 체계
- 도로명 주소 체계

3 서촌 지역 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제도의 명칭 연관성

- 지번 주소
 -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토지에 부여한 번호를 사용
 - 동명은 조선시대에 유래, 번지수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
 - 일제시대 이후 급격한 경제 개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고 필지와 건물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

- 도로명 주소
 -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새로 부여된 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주소를 말함.
 -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임.
 - 전면적으로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재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사용률은 매우 낮은 편임(2013년 11월 안전행정부 조사결과 2013년 1~9월 간의 우편물 중 도로명 주소를 단독 또는 병행 사용한 비율이 16.55%에 불과).

- 명칭 연관성
 - 도로명과 주소 체계는 그 장소의 역사성을 깊이 반영하여야 함.
 - 익숙한 도로 명칭을 도로명에 붙인 경우: 효자로
 - 익숙한 자연 유산을 도로명에 붙인 경우: 인왕산로
 - 행정동 명을 따라 도로명에 붙인 경우: 옥인길, 효자로, 사직로
 - 지역의 문화재 혹은 인물 명칭을 도로명에 붙인 경우: 필운대로, 자하문로, 창의문로
 - 서촌 내 행정동 14개 중 도로명에 사용되지 않은 동명 :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통의동, 적선동, 체부동

4 동별 역사성을 가진 명칭 발굴 및 활용 방안

- 행정동 청운효자동
 - :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 문화재, 옛 지명, 인물, 사료에 등장한 기록으로 키워드 추출

- 행정동 사직동
: 사직동, 통의동, 체부동, 필운동, 적선동, 내자동
- 문화재, 옛 지명, 인물, 사료에 등장한 기록으로 키워드 추출

- 서촌 지역 내 기존 지명,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상업시설 상호로 사용한 사례 조사
- 상업시설 상호 중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업소
- 상업시설 상호 중 서촌 명칭을 사용한 업소
- 상업시설 상호 중 세종마을 명칭을 사용한 업소
- 상업시설 상호 중 지역의 문화재, 자연 유산 등의 명칭을 사용한 업소
- 공인중개사 업소 상호 중 지역 명칭을 사용한 업소

5 정책 건의

-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필운대로 VS 필운대로, 송석원로, 선희궁로
- 자하문로 VS 청풍길

- 일제의 주소 체계 개편 이전 한글 지명 활용 방안 연구
- 지명 적용: 새다릿골, 자חת골, 구곡골
- 스토리텔링: 뗏골, 흰갯골, 만리장성골

- 상업시설 간판 작명 가이드라인 제안

차례

I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1	연구의 배경	12
1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2 1	연구의 내용	13
2 2	연구의 방법	13
2 3	연구의 범위	14
II	한국 주소 체계의 변화	16
1	조선시대 이전 주소 체계	16
1 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16
1 2	고려시대	16
2	조선시대 주소 체계	17
3	일제강점기 주소 체계	20
4	광복 이후 주소 체계	23
5	도로명 주소 체계	24
5 1	도로명 주소 체계 추진 과정	24
5 2	도로명 주소 체계 현황	25
III	서촌 지역 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제도의 명칭 연관성	30
1	지번 방식의 주소 제도	30
2	도로명 방식의 주소 제도	30

3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의 명칭 연관성	30
IV	동별 역사성을 가진 명칭 발굴 및 활용 방안	36
1	행정동 청운효자동	36
11	청운동	36
12	신교동	38
13	궁정동	40
14	효자동	41
15	창성동	42
16	통인동	44
17	누상동	45
18	누하동	48
19	옥인동	49
2	행정동 사직동	51
21	사직동	51
22	통의동	53
23	체부동	55
24	필운동	56
25	적선동	57
26	내자동	59
3	서촌 지역 내 기존 지명,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상업시설 상호로 사용한 사례 조사	62
31	상업시설 상호 중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업소	62
32	상업시설 상호 중 서촌 명칭을 사용한 업소	65
33	상업시설 상호 중 세종마을 명칭을 사용한 업소	66
34	상업시설 상호 중 지역의 문화재, 자연 유산 등의 명칭을 사용한 업소	66

3 5	공인중개사 업소 상호 중 지역 명칭을 사용한 업소	67
V	정책 건의	70
1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연구	70
1 1	필운대로 VS 필운대로, 송석원로, 선희궁로	70
1 2	자하문로 VS 청풍길	70
2	일제의 주소 체계 개편 이전 한글 지명 활용 방안 연구	71
2 1	지명 적용: 새다릿골, 자하골, 구곡골	71
2 2	스토리텔링: 띠골, 흰갯골, 만리장성골	71
3	상업시설 간판 작명 가이드라인 제안	72
	참고문헌	74

그림차례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촌 지역(2013년)

14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체계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1.1 도로명 주소 제도로 역사성을 가진 옛 지명 사라질 우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제도가 전면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동명(洞名)을 사용하던 지번 주소 체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현재 도로명 주소의 사용도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그 필요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바탕되어야 하며, 효율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선진화, 사회적 비용 증가,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 제고,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을 기대효과로 내세운 도로명 주소에 국민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현재의 마을, 지명이 반영된 도로명은 약 3만여 개로 전체 도로명 16만여 개의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번 주소 체계에서 동명(洞名)이 사라진 도로명 주소 체계로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 도시 유민의 자기 모멸감, 오래된 지명에 관한 친근감 상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라져 가는 지명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의 한양 천도와 함께 오늘날까지 약 600년 동안 서울 역사의 중심이 된 종로, 그중에서도 비교적 연구 및 조사가 부족한 서촌 지역의 고유 지명에 관한 관심과 일제의 주소 체계 개편 이전의 고유 지명 발굴을 통해 사라져 가는 지명을 되살리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옛 지명을 새 주소 체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으로 고유의 지명이 사라진 시점에서 한국의 주소 체계 변천에 관해 알아보고 역사성을 가진 기존 지명을 향후 도시 내 상업시설 작명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대상지로 잡은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자리한 서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 지명과 상호의 연관성을 살펴보며 연관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

사라져 가는 서울 지명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주소 체계의 변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체계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서촌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법정동 별 역사성을 가진 명칭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주소 체계에서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일제의 주소 체계 개편 이전의 한글 지명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방법

- 문헌 조사 - 기존 서울의 지명에 관한 서적 및 신문, 잡지 등의 기록과 새 주소 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신문 기사 등을 통한 문헌학적 조사
- 현장 조사 - 지역의 동명 및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간직한 지명을 사용하는 상업시설에 관한 현장 조사(사용 이유 및 지역 활동 조사)
- 면담 조사 - 역사·지리·향토 전문가 및 지역 문화활동가,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서면·대면 조사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를 서촌, 세종마을, 효자동 등으로 불리고 있는 경복궁 서측 지역에 한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서촌 지역은 동쪽으로는 창의문로와 경복궁을 경계로, 서쪽과 북쪽으로는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과 북악산 구간, 남쪽으로는 사직로 북단으로 하는 지역으로 한다.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촌 지역(2013년)

자료: 서울연구원, 서촌 지역 정책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 방안, 2013년

II 한국 주소 체계의 변화

- 1 조선시대 이전 주소 체계
- 2 조선시대 주소 체계
- 3 일제강점기 주소 체계
- 4 광복 이후 주소 체계
- 5 도로명 주소 체계

II 한국 주소 체계의 변화

1 조선시대 이전 주소 체계

1.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의 땅 이름은 대부분이 순수한 우리말에 그 바탕을 두었다. 즉 지금의 경북 청도군의 당시 이름은 ‘솔피’, 울산은 ‘구불벌’, 수원은 ‘물골’, 경기도 가평은 ‘큰벌’, 충남 보령은 ‘새마을’, 전북 김제는 ‘벗골’이 그 바탕이었는데, 이 같은 한자식 표기는 각각 ‘솔기(率山己)’, ‘굴화(屈火)’, ‘매홍(買忽)’, ‘근평(斤平)’, ‘신촌(新村)’, ‘벽골(碧骨)’이었다. 우리말에 한자를 빌어서 이두(吏讀)나 향가식(鄕歌式) 문자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땅 이름은 757년(신라 경덕왕 16)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임피현본백제시군(臨陂縣本百濟屎山郡)’, ‘청풍현본고구려사열이현(淸風縣本高句麗沙熱伊縣)’의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시(屎)’는 ‘피(소변(小便)의 뜻)’에서 ‘임피(臨陂)’로, ‘沙熱伊(사널리)’는 ‘서늘하다’는 의미로서 ‘청풍(淸風)’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땅 이름은 대부분 한자식 땅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1.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들어 군현제도(郡縣制度)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지방을 통치하면서 전국을 5도(五道)와 양계(兩界)로 행정구역을 재편하였다. 5도는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경상도, 전라도이고 양계는 북계와 동계이다. 양광도는 양주와 광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에서 각각 그 첫 글자를 취해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러한 도명 제정은 후에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그 밑에 경(京), 도호부(都護府), 목(牧), 군(郡), 현(縣)과 특수 행정구역인 향(鄕), 소(所), 부곡(部曲)을 두었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에서 새로운 땅 이름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다른 시대에 비해 땅 이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는 통일신라시대의 땅 이름에서 그 본바탕의 뜻을 유지한 채 조정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국도 불교(國都 佛敎)의 영향으로 불교적인 땅 이름이 많이 나왔으며 산 이름, 봉우리 이름 등에 붙여진 경우가 많다.

2

조선시대 주소 체계

조선 초기부터 사용한 주소의 표현 방식은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집이 다섯 채가 되면 하나의 통으로 묶는 통호 방식의 주소로 이를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거소의 표시와 전답의 표시 방법은 서로 달랐으며, 거소는 부방계(部坊契)와 통(統)으로 주소를 표시하였고 전답은 자번호(字番號)를 붙여 표기하였다.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한 이태조는 다음해인 1395년 6월 6일에는 한양부를 한성부라 하였으며, 9월에는 종묘·사직·궁궐을 완성하였고, 다음해인 1396년에는 백악산-낙산-목멱산-인왕산을 연결하는 약 18km의 도성을 쌓았으며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부(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52방으로 하고 각 방에는 방명표를 세우게 하였다.

이 때 우리의 땅 이름은 다시 한 번 대폭 변화되었다. 당시의 지방행정제도는 1413년(태종 13)에 확립된 팔도제와 군현제가 바탕이 되었다. 각 군현은 등급에 따라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으로 구성되었다.

한양, 개경, 평양 등에는 부방제(部坊制), 그리고 각 군현에는 면리제(面里制)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땅 이름의 이름소는 과거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형태소는 대폭 변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부 땅 이름은 충효를 바탕으로 한 유교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땅 이름이 바뀌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까지 유지되어 오던 조선시대의 행정지명은 1894년 갑오 개혁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1895년 5월 팔도제를 폐지하고 지방 제도 개정과 지방관 관제를 공포, 시행하면서 크게 변화였다. 8도의 각 감영(監營) 및 안무영(按撫營, 함경북도에 한정)과 개성·강화·광주·수원 각 유수부와 지방관을 전부 폐지하고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종래의 부-목-군-현 등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336개의 군으로 통일해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한성부와 23개의 부에는 관찰사를, 군에는 군수로 하여금 통괄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동시에 수도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의 행정구역을 다시 13도(道) 7부(府) 1목(牧) 331군(郡)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은 땅 이름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시행되었던 13도제의 행정구역은 1945년 이후 땅 이름의 골격이 되어 왔다.

많은 토박이 땅 이름이 있었으나 이 중의 일부는 한자 땅 이름으로 지도나 지리지 혹은 문서에 기록되었다. 이때 한글명을 가진 땅 이름이 한자로 변환되면서 과정에서 음차나 훈차를 통해 땅 이름이 생성되었다. 일반 민중 사이에서는 순 한글로 된 고유 땅 이름이 지속해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 각 부의 방의 명칭은 다음과 같았다.

동부 12방: 연희방(燕喜坊), 숭교방(崇教坊), 천달방(泉達坊), 창선방(彰善坊), 건덕방(建德坊), 덕성방(德成坊), 서운방(瑞雲坊), 연화방(蓮花坊), 숭신방(崇信坊), 인창방(仁昌坊), 관덕방(觀德坊), 흥성방(興盛坊)

남부 11방: 광통방(廣通坊), 호현방(好賢坊), 명례방(明禮坊), 대평방(大平坊), 훈도방(勳陶坊), 성명방(誠明坊), 악선방(樂善坊), 정심방(真心坊), 명철방(明哲坊), 성신방(誠身坊), 예성방(禮成坊)

서부 11방: 영견방(永堅坊), 인달방(仁達坊), 적선방(積善坊), 여경방(餘慶坊), 인지방(仁智坊), 황화방(皇華坊), 취현방(聚賢坊), 양생방(養生坊), 반석방(盤石坊), 신화방(神化坊), 반송방(盤松坊)

북부 10방: 광화방(廣化坊), 양덕방(陽德坊), 가회방(嘉會坊), 안국방(安國坊), 관광방(觀光坊), 진정방(鎭定坊), 순화방(順化坊), 명통방(明通坊), 준수방(俊秀坊), 의통방(義通坊)

중부 8방: 정선방(貞善坊), 광행방(廣幸坊), 관인방(寬仁坊), 수진방(壽進坊), 징청방(澄淸坊), 장통방(長通坊), 서린방(瑞麟坊), 견평방(堅平坊)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서부의 영견방과 인지방, 취현방의 3방을 폐지하여 49방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49방 제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종 때까지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언제부터 변동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동부에서 연희방·천달방·덕성방·서운방·흥성방 등 6방을 폐지하여 12방에서 6방으로 되었으며, 남부는 성신방·정심방·예성방 등 3방을 폐지하고 두모방·한강방·둔지방 등 3개의 방을 신설하여 방수는 변함없이 11방이었다. 서부에는 신화방을 폐지하고 용산방과 서강방을 신설하여 9방이 되었으며, 북부에는 명통방을 폐지하고 새로 상평방·연은방·연희방을 신설하여 12방이 되었고 중부는 8방으로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영조시대의 한성부는 5부 46방이었으며 그 밑에 328계(契)를 두었다. 그 후 고종 2년에 반포한 『육전조례』에는 동부에 경모궁방(景慕宮坊)이 신설되어 47방이 되었으며 계도 11개가 증가해 339계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초기의 한성부 관할구역은 도성으로부터 사방 10리까지로 하였으나 대부분의 인구가 도성 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각 방들도 도성 안에 많았고 도성 외에는 서대문 밖의 서부 반송방과 서소문 밖의 서부 반석방, 동대문 밖의 개천 이북 일대에 동부 송신방·인창방과 그 이남에 남부 예성방·성신방 등 6방이 있을 정도였다.

즉 도성으로부터 10리 내의 지역에는 국초부터 산림보호의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여 집을 짓는 것은 물론 장례와 벌목을 금했으며 입산금지의 표를 세워 목근(木根), 초근(草根)의 채취나 토석굴취(土石掘取) 등을 모두 금했으므로 동대문 밖과 서대문 밖의 대로변과 거주가 편리한 평탄한 곳에만 취락을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을 겪은 후 많은 이농자가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모여들어 도성 안에서 더 정착할 수 없게 되면서 성 밖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또한 한강연안의 용산, 마포, 서강, 동작, 서빙고, 두모포 등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가 희소한 종래의 방을 폐지하고 인구가 조밀한 성외에 새로운 방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종 2년(1864)에 발간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동부의 경모궁방이 신설되고 10여 개의 계가 신설되어 있을 뿐이며 큰 변동은 없었다.

태조 때는 한성부를 5부 52방으로 하였다가 세종 때는 5부 49방으로 하였고 영조 때는 5부 46방 328계로 하였으며 고종 초에는 5부 47방 339계로 하였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때 5부를 5서(五署)로 고치고 계와 동을 늘려 47방 288계 775동이 되었다.

3

일제강점기 주소 체계

20세기 초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은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글로 된 땅 이름이 일본식 한자로 바뀌었으며, 새로운 땅 이름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전의 땅 이름이 한자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1910년 8월 일제의 강점으로 지방행정구역 및 조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14년 일제는 한말 이래의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폐합-정리하였다. 1914년 3월부터는 부-군의 폐합을, 또 그 해 4월부터는 면의 폐합을 단행하였다. 이 조정은 하부의 면과 동리의 명칭, 그리고 관할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하였다. 현재의 각 지방 행정구역의 땅 이름은 이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은 부(府)의 경우 일본인 거류민단 및 거류지의 지역을 포함하였다. 군(郡)의 경우는 면적 약 40평 방리, 호수(戶數) 약 1만 호 정도로, 면(面)의 경우는 대체로 호수 800호, 면적 약 4평 방리를 표준으로 구획하였다. 그 결과 부는 지역을 축소해 12부가 되고, 군은 97개 군을 감축해서 220개 군으로 하고, 면은 1,800개 면을 감축하여 총

2,521면이 되었다.

1915년 5월에 도제(島制)가 창설되어 제주도와 울릉도에 도사(島司)를 두었다. 도는 행정-경찰이 분리된 군행정과는 달리 일원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220개에서 218개로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조선총독의 지휘 아래 지방의 도-부-군을 거쳐 면-동-리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지배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정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땅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 과정에서 특히 행정상 땅 이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형태소에 있어서 조선시대 목(牧)-부(府)-군(郡)-현(縣)으로 불리던 고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시(市)나 군(郡)으로 바뀌고, 그 밑에 동(洞), 리(里)를 두었다.

서울의 경우 현재 동 단위였던 방(坊)은 정(町)으로 바뀌었고 통(通) 등 새로운 형태소들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부터 벼슬아치들이 많이 살던 종로 일대만 해도 그 곳의 토박이 땅 이름들을 몽개 놓고 관수동, 동숭동, 공평동, 권농동, 예지동, 낙원동, 원남동, 원서동 같은 동 이름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의 을지로는 예부터 땅이 질어서 '구리개(굴개)'라 불리어 왔고 한자로 '동현(銅峴)'이었는데, 일본은 구리(銅)가 자기들 말로 황금(黃金)이 된다고 해서 황금정(黃金町=고가네마치)이란 엉뚱한 이름을 붙여 버렸다.

지금의 종로, 을지로와 같은 큰 길에는 일본식으로 '정목(町目)'이란 이름을 붙였다. 황금정(黃金町: 을지로), 서대문정(西大門町: 신문로), 원정(元町: 원효로), 죽침정(竹添町: 충정로), 의주통(義州通: 의주로), 남대문통(南大門通: 남대문로), 한강통(漢江通: 한강로), 태평통(太平通: 태평로) 등 일본식으로 개명된 거리 이름들이 나왔다.

종로 일대의 땅 이름 변천 과정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 * 관수동 / 너더리[板橋] → 관수동(觀水洞): 청계천의 흐름을 살핀다고 해서.
- * 동숭동 / 잣골[柏洞] → 동숭동(東崇洞): 崇教坊의 동쪽이라고 해서.
- * 공평동 / 회나무골[槐洞, 檜木洞] → 공평동(公平洞): 법을 집행하는 의금부가 있다고 해서.

- * 권농동 / 수문골[農圃洞] → 권농동(勸農洞): 이곳의 채소를 권장하는 농포서(農圃書)의 이름을 따서.
- * 예지동 / 옥방골[玉房洞] → 예지동(禮知洞): 유학의 네 대강(大綱)의 하나.
- * 낙원동 / 탑골[塔洞] → 낙원동(樂園洞)
- * 원남동 / 상삿골[相思洞] → 원남동(苑南洞)
- * 원서동 / 원골[苑洞] → 원서동(苑西洞): 습춘苑의 서쪽이라고 해서.

기존의 지명을 단 글자로 바꿔 놓거나 마음대로 붙여 견평방(堅平坊)의 ‘평(平)’자를 ‘지(志)’자로 바꾸어 견지동(堅志洞)으로, 계생동(桂生洞)을 줄여서 계동(桂洞)으로 해 놓았다. 여러 동을 합친 후 각 동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행정지명을 만들어 원래의 지명을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종로구 일대의 지명 변천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 * 경운동(慶雲洞): 경행방(慶幸坊) + 운현궁(雲峴宮)
- * 관철동(貫鐵洞): 관자동(貫子洞) + 철물교(鐵物橋)
- * 관훈동(寬勳洞): 관인방(寬仁坊) + 훈동(勳洞)
- * 궁정동(宮井洞): 옥상궁(毓祥宮) + 온정동(溫井洞)
- * 당주동(唐珠洞): 당피동(唐皮洞) + 야주현(夜珠峴)
- * 돈의동(敦義洞): 돈화문(敦化門) + 어의궁(御義宮)
- * 수송동(壽松洞): 수동(壽洞) + 송현(松峴)
- * 연건동(蓮建洞): 연화방(蓮花坊) + 건덕방(建德坊)
- * 옥인동(玉仁洞): 옥동(玉洞) + 인왕동(仁王洞)
- * 운니동(雲泥洞): 운현궁(雲峴宮) + 니동(泥洞)
- * 익선동(益善洞): 익동(益洞) + 정선방(貞善坊)
- * 인사동(仁寺洞): 관인방(寬仁坊) + 사동(寺洞)
- * 청운동(淸雲洞): 청풍계(淸風溪) + 백운동(白雲洞)
- * 청진동(淸進洞): 등청방(燈淸坊) + 수진방(壽進坊)
- * 통인동(通仁洞): 통동(通洞) + 인왕동(仁旺山)

이렇게 해서 우리말이 바탕이었던 수송동의 송현(松峴.솔고개), 옥인동의 옥동(玉洞.옥골), 운니동의 이동(泥洞.진골), 인사동의 사동(寺洞.절골) 등의 이름들이 사라져 갔다.

일본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본인이 많이 사용한 글자를 넣은 예도 많았다. ‘원(元)’, ‘본(本)’, ‘옥(旭)’, ‘왕(旺)’ 같은 글자들이었다. 원정(元町), 본정(本町), 옥천(旭川), 천왕봉(天旺峰) 같은 이름들이 그 예이다.

4

광복 이후 주소 체계

광복 이후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폭적인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땅 이름이 생성되었다. 특히 수도권은 행정구역이 급격하게 바뀌고 거주지역이 확대되면서 땅 이름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산지 땅 이름의 경우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소멸된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으며, 동리 땅 이름의 경우 과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땅 이름이 복원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 1945년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3도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이 중에서 5도는 북한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후 북한에서는 자강도, 양강도 등의 도를 더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남한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이름을 새롭게 명명하는 등 일제식 지명을 우리 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긴 하였으나, 일반 동들은 대부분 ‘정’을 ‘동’으로 바꾸는 등 소극적 개명에 그쳤다.

예) 인사정 → 인사동, 태평통 → 태평로, 한강통 → 한강로,
1정목-2정목 → 1가-2가

남한에서는 1946년에 경기도에 속해 있던 서울이 특별시로, 전라남도

에 속해 있던 제주도가 도로 승격하였다. 일부 대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직할시로 승격했다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1995년에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상 땅 이름은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땅 이름으로 나뉘어진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시와 군으로 나뉘어 있다.

시와 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읍·면은 법정동과 행정리,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 땅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구의 분포에 따라 지리적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분단 당시 6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11시(개성, 해주, 평양, 남포, 신의주, 청진, 나진, 성진, 함흥, 흥남, 원산)와 89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는 1특별시(평양), 2직할시(남포, 개성), 9도(평북, 평남, 황북, 황남, 함북, 함남, 강원, 자강, 양강), 21시 149군, 149읍, 4,242리동, 223노동자구로 구분되어 있다. 남한의 구(區)에 해당하는 구역(區域)은 평양(19), 남포(5), 청진(8), 함흥(6) 등에 있고, 직할시인 개성에는 없다.

5 도로명 주소 체계

5.1 도로명 주소 체계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현행 주소 체계는 지번(地番), 즉 토지 필지별 일련번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번 주소는 1910년 일제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결과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00여 년간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해왔다.

지번은 본래 특정한 위치 찾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부에 등록할 필지별 고유번호로 부여된 것이다. 처음에는 일련번호로 순차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 지시성을 가지고 있다. 즉, 1번지 옆에는 2번지가 있고, 그 방향으로 다음번엔 3번지가 있다는 식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토지 필지와 건물이 대략 일대

일로 대응되기 때문에 지번을 그대로 건물주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속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고 필지와 건물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엉뚱한 번호가 먼저 나올 수 있고, 하나의 지번에 실제 건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여러 필지에 걸친 큰 단일 건물이 있는 경우엔 주소 번호가 갑자기 건너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지번 주소를 사용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 물류수송 등 경제적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도로명 주소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덧붙여 G20 국가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번 주소를 도입한 일본조차 지금은 도로명 주소와 구역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는 등의 예를 들어 지번 주소가 매우 낙후되고 유별난 체계이고,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것이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간혹 지번 주소가 일제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제 잔재 청산’이 명분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한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 도입 효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연간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표적 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를 따름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된다.

둘째, 위치 찾기가 쉬워져 각종 물류비가 절감되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셋째, 민간 부분의 GIS 등 위치정보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119 등 구급구조를 위한 출동시간 감소로 대국민 응급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52 도로명 주소 체계 현황

정부는 1970년대부터 효율성이 떨어진 지번 주소를 대체하는 주소 체

계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1971~1973년간 일본의 구역 방식 주소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전국 6대 도시에 시범 적용한 바 있고, 1980년에는 '신 주소표시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1995년에 폐지되었다.

도로명 주소 도입이 본격화된 것은 1995년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정책추진과제로 주소 제도 개선이 채택되면서부터다. 1996년 7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추진방안'이 발표되고, 1997년 1월 1차 시범사업을 서울 강남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시작했고, 이듬해 경기 안산시 등 4개 도시에 확대 시행했다. 1999~2003년간 2단계 시범사업을 전국 135개 도시에서 시행했다.

이때까지는 법적 주소는 지번 주소 그대로 두고, 도로명 주소는 생활주소로 병행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도로명 주소 사용은 거의 확산되지 않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정부 내부와 국회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실제 도로명 주소법 입법 직전인 2005년경의 사정을 보면,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당초 사업기한인 2009년까지 연평균 13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잡았지만, 정부와 국회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2005년과 2006년 각각 30억 원과 62억 원만 반영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도로명 주소의 입법화, 즉 주소 체계의 강제 전환이다. 생활주소 사업으로서의 시행 성과가 좋아 법적 주소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성과 없이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조직과 사업을 살리기 위해 입법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2005년 10월 이 사업에 우호적인 강창일 의원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형식은 의원 발의지만 실제로는 행자부와 긴밀히 연계된 '주문형' 발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법안은 이듬해 2006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제정되고,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도로명 주소 사업은 법정

사업으로 위상이 확고해지고, 도로명 주소는 2011년부터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아예 유일한 법적 주소로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당시 행자부는 그때까지는 주소로서의 위상이 취약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못해 도로명 주소가 확산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법적 주소 전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게 된 이상 전면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전국의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도 2010년 10월까지 완료했으며, 각종 수단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률 제정 이후 정부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국민에게는 새 주소가 확산되지 않았다. 2006~2010년의 5년간 정부가 매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도로명 주소 인지도와 사용 경험 등이 수년 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명 주소 사용 경험의 경우 경험자가 5년 내내 10%도 안 되는 암담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 당초 전면 시행시기를 2012년에서 2년 유예해 2014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별다른 게 없다. 최근 보도를 보면, 11월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2013년 1~9월간의 우편물 중 도로명 주소를 단독 또는 병행 사용한 비율이 16.55%에 불과하다. 이는 2012년 말 조사 결과인 13.69%에서 고작 2.86% 증가한 것이다. 도로명 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국민의 인식과 사용률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III 서촌 지역 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제도의 명칭 연관성

- 1 지번 방식의 주소 제도
- 2 도로명 방식의 주소 제도
- 3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의 명칭 연관성

III 서촌 지역 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제도의 명칭 연관성

1 지번 방식의 주소 제도

연구의 범위로 한정된 서촌 지역에는 총 15개의 법정동과 2개의 행정동이 속해 있으며 그 동명은 아래와 같다.

- 행정동 청운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 행정동 사직동: 사직동, 통의동, 체부동, 필운동, 적선동, 내자동

2013년까지 공식 사용된 지번 방식의 주소 제도에서 사용된 도로명은 효자로, 추사로 등이다.

2 도로명 방식의 주소 제도

연구의 범위로 한정된 서촌 지역은 여섯 개의 로(사직로, 필운대로, 자하문로, 효자로, 인왕산로, 창의문로)와 한 개의 길(옥인길)의 도로명 주소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3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의 명칭 연관성

길 이름과 주소 체계는 그 장소의 역사성을 깊이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 활용 가이드에 의하면 기존 마을 이름, 기존 지명이 반영된 도로명은 약 3만여 개로 전체 도로명 16만여 개중 약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연구의 범위로 잡은 서촌 지역의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사용된 도로명을 분석해 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직로는 조선시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사직단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역의 도로명으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효자로는 지역 주민이 오랜 시간 동안 불러오던 길 이름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왕산로는 인왕산 중턱에 수도 방위와 관광도로로 건설된 인왕스카이웨이를 가리키는 말로 도로명 주소로 정착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운대로는 법정동 매동초등학교에서 신교동 서울농학교까지 이어진 길로 백사 이항복의 집터인 필운대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은 적절하나, 이 지역을 알지 못하는 이가 들었을 때 필운-대로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도로명 주소 안내판의 한자 표기가 필운대-로(弼雲臺路)가 아닌 필운-대로(弼雲大路)로 되어 있던 것을 민원을 통해 수정하였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필운로(弼雲路)라고 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하문로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세검정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로, 자하문은 서촌 지역 내에 있는 지형 지물이 아니며 행정안전부의 도로 분절 지침에 따르면 터널을 기준으로 분절하여 별도의 도로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또한 지역 내 자하문로가 지나가는 곳은 추사 김정희의 집터가 있었던 곳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은 이 길을 추사로라고 불렀다. 이에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현 자하문로를 추사로라고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창의문로는 효자동 삼거리에서 부암동 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길로, 창

의문은 서촌 지역 내에 속해있는 지형 지물이 아니다. 또한 창의문은 자하문의 다른 이름으로, 같은 지물의 다른 이름을 지역 내 대표적인 도로 이름에 둘 다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창의문로에 해당되는 도로의 80% 이상이 청운동에 속해있으므로 지역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현 창의문로를 청운로라고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종로구 도로명 등 주소 체계 정비> 용역 보고서(발주: 종로구청, 용역수행기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2009년 10월 제출)에 삽입된 ‘2002년에 부여된 서촌 지역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를 통해 2015년 현재 일곱 개(여섯 개의 로, 한 개의 길)인 도로명보다 훨씬 많은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사용되는 길 이름과 중복되는 도로명을 제외한 도로명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체부동길, 안경다리길, 적선동길, 청풍길, 백운길, 청운길, 송석원길, 선희궁길, 자수궁길, 진명길, 운강길, 청기와길, 매동길, 적선동길, 난초길, 솔향기길

위 도로명 가운데 ‘난초길’, ‘솔향기길’처럼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지 않은 도로명도 있으나, 금천교 시장을 관통하는 도로명이었던 ‘안경다리길’의 경우 금천교의 모양이 안경을 닮았다고 하여, 안경다리라고 불리었다는 역사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의 역사를 떠올려볼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도로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밝힌 용역을 통해 선원 김상용의 별장이 있던 청풍계의 이름을 따서 청풍길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던 청운동의 길은 자하문로 32로 변경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도로명을 단일화하여 변경한 이유는 너무 많은 도로명, 사소한 역사성 인용, 추상적인 명칭 사용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선 선조 때 이 지역에 살았던 운강 조원의 호를 새긴 바위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바위가 있는 장소를 운강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사소한 역사성 인용이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또한 송석원길의 경우 2002년 도로명 부여 당시에는 현재의 필운대길 북쪽 방향 절반이 송석원길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석원은 인왕산 아래에서 시사를 꾸렸던 역관 천수경의 집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성을 잘 드러내는 길 이름이라 할 수 있겠다.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지역의 역사성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 매우 아쉽다. 체부동길, 적선동길, 청운길 역시 지역의 동명을 보전할 수 있는 도로명이었는데, 이 역시 최종 도로명 부여에서 제외되어 유감이다.

현재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서촌 지역 내 도로명과 기존 지명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익숙한 도로 명칭을 도로명에 붙인 경우: 효자로
- 익숙한 자연 유산을 도로명에 붙인 경우: 인왕산로
- 행정동 명을 따라 도로명에 붙인 경우: 옥인길, 효자로, 사직로
- 지역의 문화재 혹은 인물 명칭을 도로명에 붙인 경우: 필운대로, 자하문로, 창의문로
- 서촌 내 행정동 15개 중 도로명에 사용되지 않은 동명
: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통의동, 적선동, 체부동, 내자동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총 15개의 법정동이 속해있는 지역에 행정 편의를 위해 도로명이 단일화되어 사용된다면 배제된 지명인 11개의 동명은 잊혀지게 될 것이다.

IV 동별 역사성을 가진 명칭 발굴 및 활용 방안

- 1 행정동 청운효자동
- 2 행정동 사직동
- 3 서촌 지역 내 기존 지명,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상업시설 상호로 사용한 사례 조사

IV 동별 역사성을 가진 명칭 발굴 및 활용 방안

1 행정동 청운효자동

: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 문화재, 옛 지명, 인물, 사료에 등장한 기록으로 키워드 추출

1.1 청운동

청운동의 동명은 이곳에 원래 있던 청풍계(淸風溪)와 백운동(白雲洞)의 첫 글자를 따온 데서 유래된다. 동명이 유래된 청풍계와 백운동은 도성 북쪽 인왕산과 백악 사이 자하문(창의문) 고개의 남쪽에 있다. 이곳은 깊숙하고 그윽한 계곡에 맑은 수석이 청풍과 함께 항상 백운으로 덮여 있었다. 백운동은 조선 초기 중추부 이의념(李義念)이 살았던 곳으로 그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성의 서북쪽 산자락에 위치한 백운동은 산도 높지 않고 골짜기도 그렇게 깊지 않지만 푸른 송림과 등라덩굴 사이로 맑은 냇물이 소리내어 흐르고 맑은 하늘에는 아침 저녁으로 점점이 떠있는 흰구름이 아름다워 주변의 경관과 함께 어우러지므로 옛날부터 많은 문인, 묵객들이 즐겨 찾아 은거소창(隱居消暢)하던 곳이었다.

그 중에도 지금 청운초등학교 뒷쪽 일대는 임진왜란 후에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청절대신(淸節大臣)으로 유명한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복거지(卜居地)가 되었던 청풍계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 오면 누구든 시 한 수를 읊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많은 문인이 청풍계

백운동을 노래하였다.

청운동에는 여러 개의 자연부락이 있었다. 123번지의 청운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우물은 크고 수량도 많아 바가지로 푸게 되었으므로 박우물이라 하였고 마을을 박우물골 또는 한자명으로 박정동(朴井洞)이라 불렀으며 청운동과 궁정동에 걸쳐 있었다. 신교(新橋)는 신교동 70번지와 청운동 108번지를 이어주는 다리로 장조(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사당인 선희궁을 만든 후 그 동편에 새로 놓았는데 새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유란동(幽蘭洞)은 경기상업고등학교 부근에 있던 마을로 바위에 ‘幽蘭洞’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자하골은 청운동 일대를 통칭하는 말로 골이 깊고 수석이 맑고 아름다워서 선경(仙境)에 비하며, 또 개성의 자하동과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창의동(彰義洞)은 청운동 일대를 일컫는데 창의원 안쪽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 이것이 변해서 장의동(壯義洞)으로 불렸으며 줄여서 장동(壯洞)이라고도 한다. 근처에 김상헌·상용 형제의 후손이 많이 살았으므로 이들을 장동김씨(壯洞金氏)라고도 불렀다.

청운동 일대를 중심으로 서리(胥吏)들의 마을이 있어 상대(上臺) 또는 옷대라 하였다. 경북고등학교(청운동 89-1)가 있는 곳은 조선 말에 효곡(孝谷) 또는 쌍효자거리, 쌍효자가(雙孝子街)로 불렸는데 여기서 오늘날 효자동의 동명이 유래되었다. 조선 순조까지만 하더라도 경기상업고등학교(청운동 89번지)에 있던 청송당(廳松堂) 부근은 많은 종류의 꽃이 있었기 때문에 도화동(桃花洞)이라 부를 정도였고 도성 안의 사람들이 봄철 놀이장소로 손꼽던 곳이었다.

현재의 청운동은 동쪽으로 삼청동·세종로와, 남쪽은 궁정동·신교동·옥인동과 인접해 있고, 서쪽과 북쪽은 부암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청운동은 북악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동 전체의 절반 가량이 임야지대로 되어 있다. 동의 서쪽에는 인왕산길이, 중앙의 남북으로는 자하문길과 창의문길이 통과하며 북악산의 중간을 지나는 자하터널이 부암동과 청운동을 이어주므로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다.

○ 청운동 키워드

창의문 / 말 빠진 곳 / 농상소 터 / 박우물 / 백운동천 / 자하골 / 창의동 / 창의문 / 청송당 터 / 청풍계 / 청풍각 / 청풍교 / 태고정 터 / 백세청풍 / 청운산장 / 남거유거 / 양산동교천 / 도화동천 / 무릉폭 / 성암 / 농상아문 터 / 운강대 / 청송당유지 / 만세동방성수남극 / 청운초등학교 돌다리(신교) 부재

서울본조아리랑(인왕산 뿌꾸기는 왜 저리 울어 가신 님 생각에 눈물이 나네)

오돌독(인왕산 덜미에 에루화 저 뽕꼭새야 누구를 그리워 밤 새도록 우느냐)

최규식 경무관 / 정종수 경사

12

신교동

신교동의 동명은 신교동 70번지 신교소방서와 궁정동 9번지 사이를 연결해주던 새 다리가 있었던 동(洞)이라 하여 이를 한자로 옮긴 데서 유래되었다. 지금은 이름만이 남아있을 뿐 복개되어 다리의 형체를 볼 수는 없다.

경우궁(景祐宮)과 경복궁(景福宮) 사이를 흐르던 냇가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신교는 「대동지지(大東地志)」와 「수선전도(首善全圖)」에도 표시되어 있으나 『한경지략(漢京識略)』에는 ‘인왕산 아래 백운동에서 시작한 개천이 동남으로 흘러 자수궁교(慈壽宮橋)와 금청교(禁淸橋)를 지난다’라고만 표기되고 신교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므로 『한경지략』이 저술된 1830년부터 「대동지지」가 제작된 1864년 사이에 신교가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 증중조의 문인 놀재(訥齋) 박상(朴詳)의 「청송당시(聽松堂詩)」에 ‘오가는 가교에는 외나무 건너놓였고, 허송하다 심은 벼들 일만실이 드리웠네’라는 시구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에 있어서 거의 성시(城市)와 떨어진 느낌이 있다. 이 유심(幽深)한 지역에 정작 다리다운 이름있는 다리가 가설되지 않았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고종조때 이곳에 새 다리가 놓이고 동명도 이 다리의 가칭인 새다리 그대로 부르던 때에, 동리의 구역은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서 지금의 신교동 일원은 물론 청운동, 궁정동, 효자동 등의 지역이 ‘신교’라는 동 안에 포함되었다.

현재의 신교동은 북쪽으로 청운동, 동쪽은 자하문 길을 경계로 궁정동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과 서쪽은 옥인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1959년 2월에 종로소방서 관할 신교소방서가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소방관계 민원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가 신교동의 약 45%를 차지하고 그 외 나머지는 주택가로 형성된 서울의 전형적인 주거지이다.

○ 신교동 키워드

선희궁 터 / 서울맹학교 / 서울농학교 / 세심대 / 송구봉 터 / 양정재 터 / 옥상궁 / 새다리골 / 후천 / 감로천 / 독락정
 우당 이회영 / 변영로 / 김상헌 / 김수흥

궁정동

궁정동은 1914년 4월 1일 동명 개정에 따라 이전 북부 순화방의 육상궁동, 동곡, 온정동, 신교, 박정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육상궁의 ‘궁’자와 온정동, 박정동의 ‘정’자를 따서 궁정동이라 하였다.

궁정동의 동명과 함께 지금도 고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육상궁(毓祥宮)의 건물이다. 지금 청와대의 서쪽, 바로 북악 밑에 자리잡은 육상궁은 처음 영조가 그의 생모인 최씨를 위하여 세웠던 사묘(祠廟)였다.

궁정동을 이룬 자연 부락인 동골은 궁정동과 효자동에 걸쳐 있는 마을로 육상궁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동곡(東谷)이라고도 한다. 박우물골은 청운동과 궁정동에 걸쳐 있는 마을로 박우물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인데 박정동(朴井洞)이라고도 한다. 박우물은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아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어 바가지우물이라 하던 것이 박우물로 바뀌었는데 박과 음이 같은 박(朴)으로 바뀌어졌다.

육상골은 육상궁동이라고도 하는데 육상궁이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으로 궁정동과 효자동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또한, 1946년 10월 일부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동회제도가 시행될 때 궁정동은 신설된 경무동회(景武洞會)에 소속되었는데 이때의 동명은 경북궁 비원에 있는 과장(料場)이며, 열무장소(閱武場所)와 성역(聖域)으로 사용되던 경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현재의 궁정동은 북쪽으로 청운동, 동쪽으로는 세종로, 남쪽은 효자동, 서쪽은 자하문로를 경계로 하여 신교동과 마주보고 있다. 청운동의 관할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지만 비교적 넓은 이면도로가 동의 한 가운데를 종횡으로 지나고 있다.

- 궁정동 키워드
 육상궁 / 회화나무 / 무궁화 동산 / 백악신사터 / 대은암 / 동골 / 맷돌바
 위 / 무속헌 터
 “한 발의 충성으로 / 그가 사라져간 그 날 이후로 /
 70년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 / 수많은 사연과 할 말을 남긴 채”
 (신해철 ‘70년대에 바침’)
 동농 김가진 / 이쾌대

14 **효자동**

효자동의 동명은 이곳에 있던 원래의 자연부락 효곡(孝谷)에서 유래되었
 다. 효곡은 고종 31년 갑오개혁 때에도 동명 중의 하나로 보이는 것으로
 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동명은 원래 이곳에 임
 천조씨(林川趙氏)의 쌍효자가 나서 유명하였기 때문에 ‘쌍효жат골’, ‘효
 잣골’로 불려온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쌍효자란 조원(趙瑗)의 아들 희정
 (希正)과 희철(希哲) 형제로 나라에서 이들에게 내린 정문(旌門)이 있었
 다. 1914년 이래로 다른 동리들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효자동’으로 불
 러오게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효에 대한 새로운 일식을 이야기하고 가부
 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윤리의 관념이 많이 변천된 오늘에 있어서도 효
 자동의 동명은 새삼 옛날의 윤리관과 가정미담을 다시금 상기하게 한다.
 효자동을 이룬 자연부락은 효자동과 궁정동에 걸쳐 있는 곳에 더운 우물
 이 있어서 더운 우물골 혹은 온정동(溫井洞)으로 불렸다. 궁정동(宮井洞)
 의 육상궁(毓祥宮) 동쪽에 해당하는 효자동 138~145번지 일대는 동곡
 (東谷), 동골이라 하였고, 육상궁 동쪽 동네라는 뜻이다. 동골의 좌측에
 있는 동네는 육상궁동, 육상굴이라 하였다.

효자동, 창성동, 통의동에 걸쳐 있는 마을은 장동(壯洞)이라 하였는데 처

음에는 창의동(彰義洞)이라 하다가 변해서 장의동(壯義洞)이 되고 다시 장동으로 줄여서 불렀으며, 장동은 지금의 효자로를 따라 서쪽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이다.

효자동과 창성동에 걸쳐 있는 마을은 흰갯골 혹은 백구동(白狗洞)으로 불렀는데 경복궁 가까이에 있던 이 동네에서는 흰 털을 가진 개를 많이 길렀기 때문이다.

현재의 효자동은 동쪽으로 효자로를 사이에 두고 세종로의 경복궁과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 궁정동과 인접하고 서쪽은 옥인동과 남으로는 창성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종로구의 북부지역에 있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효자동은 조선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번성했던 곳이며 일제 때에도 비교적 한국인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다. 지금의 주택가도 일제 초에 대부분이 구획정리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효자동 키워드

환관 집단 거주지 / 흰갯골 / 쌍홍문 터 / 효자동 전차 종점역 / 효자동 사랑방

효자동 이발사

아직도 난 / 피코(손 잡고 걸었던 효자동 골목길)

박목월 / 신익희

15 **창성동**

창성동의 동명은 갑오개혁 때 북서 순화방관 하에 사재감상패계 창성동(昌成洞)의 ‘성(城)’자와 순화방 내 사재감하패계의 동명 중에 장성동(長城洞)이라는 동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장성’ 또는 ‘창성’이라는 이름

을 지닌 옛날의 고성지(古城址)에서 온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지리서 중에서 그러한 고성의 유지(遺址)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성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청송당(聽松堂)’의 음이 서로 비슷한 관계라 하여 창성동(昌城洞)으로 변하고 성과의 관련이 없는 창성(昌城)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다시 글자의 음이 같은 ‘성(成)’자로 바꾸어서 ‘창성동(昌成洞)’으로 아화(雅化)되어 유래된 것 같다.

창성동을 이루고 있는 자연부락 가운데 옥정동(玉井洞)은 일명 더운우물골이라고도 불린다. 이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맑고 달아서 옥로수(玉露水)와 같다 하여 옥정(玉井)이라고도 하였다. 대동(帶洞)은 창성동과 통의동에 걸쳐 있었던 마을로 띠를 만드는 집이 있으므로 ‘대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밧골이라고도 하였다. 백구동(白狗洞)은 효자동과 창성동에 걸쳐 있는 마을로 흰 개를 많이 길렀으므로 흰개골이라고 하였다. 간곡(間谷)은 창성동 117번지 서쪽에서 67번지 옆으로 통한 사잇길에 있는 마을로 셋골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범숫골이란 마을이 백구동(흰개골) 서쪽에 있었는데 수목이 많이 있으며 범이 소를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범숫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의 창성동은 동쪽으로 효자로를 사이에 두고 세종로와 마주 보며 남쪽은 통의동, 서쪽은 자하문로를 경계로 통인동과 접해 있고 북쪽은 효자동과 이어졌다. 지금의 자하문로는 당초의 창성동 쪽 1/3 가량이 도로였고, 통인동 쪽 1/3은 하천이었던 것을 복개, 확장하여 동쪽 서쪽 경계선이 되었다. 동 면적의 1/3 가량이 진명여자중·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 부지였으나 진명여중·고는 1989년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되면서 종로경찰서에서 사용하며 국민대학교는 정릉으로 대학이 이전한 후 지금은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창성동 키워드
 더운 우물 / 땃골 / 서근다리 / 청송동 / 체신관리양성소 / 진명여학교
 (58번지 일대)

16

통인동

통인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옛 마을 중 하나인 한성부 북북 준수방 통곡과 인왕산의 글자를 각각 한 자씩 따온 데서 유래되었다.

1936년 4월 1일 서울의 동명을 일제식의 정(町)으로 일원화하면서 통동(通洞)에서 통인정(通仁町)으로 바뀌었다. 이는 이웃해 있던 통의동(通義洞)이 1914년 동명 개정 때 통의방(通義坊)의 방명(坊名)을 그대로 따서 동명으로 삼은데 비해 통인동은 이곳을 이룬 옛 자연부락인 통곡(通谷)의 이름을 따서 통동이라 하였다. 1936년 동명 개칭 때 이웃한 통의의 이름을 유교의 기본 덕목이 되는 인의예지(仁義禮智) 가운데 두 번째인 ‘의’를 사용한 대신 통동은 그 첫째 근본이 되는 ‘인’을 넣어 통인정으로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 인의동, 예지동이라는 동명을 들 수 있다.

통인동을 이룬 자연부락 가운데 통곡은 통골이라고도 하며 사포서(司圃署)가 있는 마을은 사포동, 그리고 옥인동과 통인동에 걸쳐 있는 마을은 옥동(玉洞) 혹은 옥류동(玉流洞)이라 하였다.

현재의 통인동은 동쪽으로 자하문로를 경계로 하여 창성동·통의동과 마주하며 남쪽에는 체부동, 서쪽에는 누하동이 있으며 북쪽에 옥인동이 있다.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자리 잡은 통인동은 궁궐이 가까웠던 만큼 이와 관련된 관청이 여럿 있었고 관청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 통인동 키워드
 내시부 터 / 사포서 터 / 준수방
 세종대왕 / 이상 / 이완용

17 누상동

누상동은 1914년 4월 1일 경성부(京城府)의 동명을 새로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누각동에 있는 북부 순화방의 누각동(樓閣洞)의 일부를 누상동이라 하였다. 고종 초에 편찬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누각동은 인왕산 아래에 있으며 연산군 때 누각을 지었다 하여 누각동이라 하였다. 지금은 여항(閭巷)의 서리노퇴자(胥吏老退者)가 많이 살고 있으며 화과업(花果業)에 종사하는 자가 많다.

누각이 있었다는 데서 동명이 유래된 타당성은 인정하나 과연 연산군 때 누각을 지었는가가 문제 된다. 여기서 누각이라 함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될 만큼 규모가 큰 누각 건물로 민가의 것이라기보다 궁궐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연 연산군 때 누각동 일대에 그러한 건축을 영건(營建)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직염국으로 개편하기도 하였지만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도렴서로 복원되어 말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도 고려시대의 직제, 임무 등을 그대로 계승하여 한양천도 후에 도렴서를 궁궐과 가까운 이곳에 설치하였고, 70여 년은 지나서 세조 6년(1460)에는 중부수진방(壽進坊)에 있는 제용감(濟用監)에 병합되었다.

1914년 동리구역을 조정 개편할 때에는 도림서가 있는 일대의 마을인 도림동, 공조(工曹)의 뒤가 되므로 붙여진 공후동(工後洞) 혹은 공조뒷골, 적선동 170번지에 궁중에서 필요한 술과 감주를 공급하는 관아가 있었고, 그 주변의 부락은 사온동(司醞洞) 혹은 사온뒷골, 의영고가 있던 주변의 마을은 의영곳골 혹은 의영동(義盈洞)의 구역을 합하여 도림동을 신설하여 지금에 이른다. 『연산군일기』에 의하면 창의문(彰義門) 밖의 장의사(藏義寺) 터에 세웠던 이궁, 소격서동(昭格署洞)에 세운 이궁, 두모포(豆毛浦) 이궁 등이 대체로 서울에 세운 연산군 때의 이궁으로 세 곳 이외의 이궁은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한다.

즉, 누각동에 누각을 세운 시기가 연산조였다고 함은 잘못 전해진 기록이며 광해군(光海君) 때 조성한 누각동 일대에 소재했던 인경궁(仁慶宮)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경궁은 광해군 9년부터 15년까지 역사(役事)를 계속하면서 그동안에 외전(外殿)·내전(內殿)·별실(別室) 등의 주요건물을 영조하였으나 궁궐로서의 제반시설을 채 완공하지 못하고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건축이 중단된 궁궐이다.

광해군이 인경궁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승려 성지(性智)의 권유에 있다. 인왕산은 석산이 튀어나온 데다가 인왕이라는 두 글자가 길하므로 그 아래 왕궁을 세워 왕자가 거처하면 역수(曆數)가 가연(可延)하고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건축되었다. 그러나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하고 이복아우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유폐, 마침내 죽게 만드는 등 패륜정치를 일삼던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축출되자 인경궁은 빈 집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인조 11년에는 인경궁의 일부를 철거하여 목재와 기와를 창경궁의 내전 조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전각들은 효종 때까지 존치되었다가 숙종, 영조 때에 이르러 건물들

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민가(民家)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약 200년 동안 존속된 인경궁의 위치는 현재의 필운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일대로 인조 11년에 일부 전각이 철거되고 나머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곳이 누각동 일대였다. 『동국여지비고』에서 말하는 누각동은 곧 인조반정 이후 남아있던 인경궁의 전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산군 때 누각동에 궁궐을 영조한 일은 전혀 없으며 그 이후에도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경궁은 건립한 후 왕이 거처한 일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완성되지 못한 채 일부 철거된 ‘폐기된 궁궐’이어서 궁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누각이라고 했던 것 같다.

따라서 『동국여지비고』에 ‘누각동은 연산군 때 세운 누각이 있어 그 동명이 유래되었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며, 광해군 때 세운 인경궁의 누각이 있다 하여 누각동이라는 동명이 생긴 것이다. 누각동이란 지명은 인경궁이 이룩된 광해군 이후에 생성된 지명이었으며 일제 초까지 사용되다가 없어진 동명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누상동은 북쪽으로 옥인동, 동쪽으로 누하동, 남쪽으로 필운동, 사직동, 무악동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이웃한 전체 면적의 2/3가 산지(山地)로 형성된 곳으로 누상동이란 동명은 동쪽 동북쪽에 비교적 오밀조밀하게 주택지가 밀집하여 형성된 데서 동명이 연유되는데, 영조 때 만든 「도성지도(都城地圖)」에는 누각동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누상동을 통과하는 가로(街路)는 인왕산길 하나뿐인데 인왕산길은 사직동에서 누상동, 옥인동을 거쳐 청운동의 창의문까지 폭 12~15m, 연장 2,300m의 가로(街路)이다.

- 누상동 키워드
 한양도성 / 인왕산 / 일세암 / 백호정 / 곤우물 / 굽은성 / 누각골 / 버드나뭇골 / 복우물골 / 소나뭇골 / 버드나무약수터 / 불로천약수터
 건드령타령(누각골 처녀는 씹지 장수로 나간다지)
 바위타령(너럭바위 치마바위 감투바위 뱀바위 / 자하문 밖 붙임바위 백운대로 결단바위 / 필운대로 샷갓바위 남산은 피꼬리바위)
 윤동주 / 이중섭 / 안평대군

누하동

누하동은 남척동(南隻洞), 송목동(松木洞), 장성동(長成洞), 오거리(五巨里), 유목동(柳木洞), 누각동(樓閣洞) 일부를 합쳐 누각동 아랫쪽에 있다는 데서 동명이 유래되었다. 조선 후기 이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역사가 오래된 동이다. 이 가운데 누하동의 동명 유래가 되는 누각동의 지명은 영조 때 만든 「도성지도(都城地圖)」에는 표시되어 있다. 누각은 연산군 때 지었던 정자가 아니고 광해군(光海軍) 때 건축한 인경궁(仁慶宮)으로 증·개축하여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이후 빈 집으로 두자 황폐해져 빗물이 새는 누각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또 누각골에 사는 사람들도 양반 사대부가(士大夫家)가 아닌 서리(胥吏)임을 보더라도 퇴락한 궁궐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누상동, 누하동, 체부동에 걸쳐 있는 누각동에 사는 사람들은 옛부터 집집마다 담배 씹지와 갓을 만들었는데 용마루 위에 시령을 얹고 씹지와 갓을 널어 말렸으므로 “누각골 색시는 씹지 접는 데로 다간다”는 노래가 있었다.

남척동은 누각골 아랫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납작하여 납작골이라 불렀는데 한자로 남척동이라 표기하였고, 유목동은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유목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버드나뭇골이라고도 한다.

복정동은 물이 맑고 차서 삼복 더위도 물리친다는 복우물이 있기 때문에 복우물골이라 했고 한자로 쓴 것이 복정동(福井洞)이다.

송목동은 소나무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송목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장성동은 담이 성처럼 길게 뻗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아마도 인경궁의 담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성동(水聲洞)은 누하동 뒤쪽으로 누상동과 경계되는 곳의 지명인데 한가롭고 그윽하여 물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해서 수성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수성동에는 기린교(麒麟橋)라는 이름의 석교(石橋)가 있으며, 수성동 계곡은 옥인시민아파트 철거 후 복원되어 2012년 도시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의 누하동은 동쪽으로 통인동, 체부동이 남쪽으로는 필운동, 서쪽은 누상동 그리고 북쪽은 옥인동이 에워싸고 있으며 전형적인 집단 주택 지역이다.

- 누하동 키워드
안평대군 집터 / 노천명 / 천경자 / 이상범

19 옥인동

옥인동의 동명은 옥동(玉洞)과 인왕동(仁王洞)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옥인동의 동명이 유래된 옥동은 옥류동(玉流洞) 혹은 옥골이라 불려지기도 하는데 옥인동과 통인동에 걸쳐있는 지역이다. 옥인동 47번지 북쪽 돌벽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글씨라고 하는 ‘옥류동’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집 담 안에 있어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옥류동은 장안에서 명승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고관들의 별장이 곳곳에 들어서서 연회와 시연이 그치지 않았고 옥류동의 각자(刻字) 아래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냇물을 탄뢰란(灘瀨瀾)이라 불렀다. 이런 옥류동은 글자 그대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처음에는 민가지대가 아닌 곡간(谷澗) 유수처(流水處)를 말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진다.

「도성지도」에도 옥류동은 인왕산 아래의 수원처(水源處)로 표시되어 있다. 처음에는 옥류동이 인왕산 아래의 속간유수처를 지칭하였으나 차차 그 명칭이 확대되어 그 근처의 민가지대를 호칭하는 지명으로까지 옮겨 칭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인왕동으로 기록에 인왕동이란 이름이 보이는 것은 세종 때부터 인왕동이란 지명은 세종 무렵부터 존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인왕산이란 지명은 어떻게 생겼다가 문제인데, 인왕동과 관계있는 것으로는 인왕산(仁旺山)과 인왕사(仁王寺)로 이들 모두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간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왕사는 태조, 성종 때의 기록에도 종종 등장하며 연산군 때는 인왕산 북세암과 금강굴이 경복궁을 내려 누르고 있으므로 근방의 민가와 함께 철거토록 했다는 기사로 보아 적어도 연산군 때까지는 존속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인왕산의 이름이 기록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태조부터 세종 때까지로 이때는 서봉(西峯), 서산(西山)이라는 명칭이었다. 인왕산의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광해군 때로 ‘산에 옛날에는 인왕사가 있어서 그 이름으로 되었다’고 하여 인왕사에서 인왕사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유에서 본다면 옥인동 역시 인왕사에서 유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인왕사동에서 인왕동으로 변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옥인동은 청운효자동 관할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부암동과 청운동, 동쪽은 효자동, 남쪽은 통인동, 누하동, 누상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은 서대문구이다. 옥인동은 동쪽이 주거지역, 서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가용면적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옥인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인왕산길과 동의 경계를 이루는 자하문로가 중심도로이다.

○ 옥인동 키워드

(행정동) 청운효자동 - (법정동) 옥인동

서용택 가 / 인왕산 바위 / 수성동계곡 / 순화병원 / 가재우물 / 국지우물 / 바닥우물 / 윤씨가옥 / 북학 터 / 소반바위 / 육헌청 터 / 자수궁 다리 / 청심당 터 / 청휘각 터 / 칠성재 / 유란동 / 경우궁 / 벽수산장 / 자수원 / 인곡정사 / 옥동청강 그림 / 인왕제색 그림 / 삼승정 그림 / 옥류동 / 옥류천 / 송석원

겸재 정선 / 천수경 / 가객 장우벽 / 장훈 / 장동 김씨 / 노가재 / 박노수 / 이여성 / 윤덕영 / 김수임 / 엘리스 킴

2 행정동 사직동

2.1 사직동

사직동의 동명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며 영조 27년(1751) 9월에 왕이 성내 시민의 도성수호에 관한 절차 등을 윤음으로 반포하는 중에도 사직동계의 명칭이 보인다. 그리고 1914년 경성부제의 실시와 함께 동리 간의 구역을 재조정할 때에는 옛 사직동의 일부에 무덕문(武德門)이 있었던 곳을 무덕문골 혹은 줄여서 무덕동이라 하였으며 무덕문은 사직동에서 신문로 2가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었던 것으로 경희궁의 북문이었다. 그리고 사직동과 내수동에 걸쳐 박우물이 있다 하여 박우물골 또는 박정

동(朴井洞)이라는 마을과 도정궁(都正宮) 앞 등 너머에는 너멍골, 사직동 서쪽에는 창평동(昌平洞)을 합하여 사직동으로 하였는데, 사직동이란 동명은 사직단(社稷壇)이 있다는 점에서 유래되었다.

사직동의 동명 유래가 되는 사직단은 사직동 1-28에 있다. 원래 사직의 연원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社)는 토신(土神), 직(稷)은 곡신(穀神)을 의미한다. 토신은 곧 국토를 주재하여 관리하는 신으로, 곡신은 농작의 풍흉(豊凶)을 좌우하는 신이라 보았던 만큼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던 고대 농본(農本)국가에서는 왕신의 조선(祖先)을 모신 종묘와 함께 가장 중시하던 시설이었다. 따라서 근대에 와서는 국왕이나 대신은 종묘사직과 사생(死生), 존망(存亡)을 같이 할 의무를 느끼기도 하였으며 또 사직은 국가를 의미하는 말로 쓰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선덕왕(善德王) 때에 사직단이 처음 설치되어 그 제사(祭祀)가 국가 사전(祀典)에 거행되었고 고려 때는 성종 10년부터 왕의 교지(教旨)로 설치되었으며, 뒤이어 사직단의 제사의식 등이 상정되고 국가에서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왕이 사직단에 나아가서 직접 제사를 드렸다.

한편 조선에서는 태조 2년 한양에 도읍을 정한 뒤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제도에 따라 종묘는 당시 왕궁인 경복궁의 동쪽인 동부 연화방에 두고 사직은 왕궁의 서쪽인 서부 인달방 즉 지금의 사직공원 안에 설치하였다. 이는 태조 4년(1395)에 조영되었으며 단이 완성되자 주변에 동서 북쪽 산기슭을 따라 담장을 두르고, 안에 신실(神室)과 신문(神門)을 세웠다.

사직단은 1907년 7월 이후부터 제사가 폐지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원에는 신사임당(1970년 10월 14일 건립), 이율곡(1969년 8월 8일 건립)의 동상과 김동인 문학비(1976년 10월 건립)가 있다.

공원 안 언덕쪽에는 시립 종로도서관이 있고 사직동 1-48번지에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황학정 근처에는 사직 노인정이 외로운 노인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사직동은 북쪽으로 누상동과 필운동이, 서쪽은 무악동, 행촌동 그리고 남쪽은 홍파동, 송월동, 신문로2가가, 동쪽에는 내수동, 내자동이 둘러싸고 있다. 인왕산의 정상에서 동쪽과 남쪽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그 산록에 자리잡은 사직동은 공원지구와 주택단지가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사직동은 행정관할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사직동 키워드

사직단 / 황학정 / 단군성전 / 등과정 / 황학정팔경시 / 도정궁 / 경원당 / 덕흥대원군 가묘(사직동 262번지) / 메뚜기동산 / 박우물 / 박우물골 나무 그림자 쏟아지는 햇빛 아래(사직동/아름) / 허견

2.2 통의동

통의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이곳이 한성부 북부 의통방(義通坊)이었다가 갑오개혁 때 통의방(通儀坊)으로 바뀐 데서 유래된다. 통의방은 태조5년(1396) 4월 한성부에 명하여 한성 5부의 각 방명표(坊名標)를 세우게 할 때 북부 10방 중 하나로 처음 기록에 나타났는데 이 의통방이 지금의 통의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그 후 500년간 의통이란 방명이 지속되어 오다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관제와 지방구역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종래 5부(五部)를 5서(五署)로 고치고 방동명(坊洞名)의 일부 개정으로 종전의 의통방이 통의방으로 개칭되었으며 1914년 동명 제정으로 종전 통의방을 중심지역으로 한 동명으로 바뀌었다.

통의동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로는 흰 소나무가 있다 해서 통의동 35번지 일대를 흰소나무골, 백송동(白松洞)으로 부르고, 효자동과 통의동 사이에 형성된 마을은 장동(壯洞)이라 하였다. 원래 창의문(彰義門)이 있어 창의동이라 하던 것이 변해서 장의동이 되고 다시 장동으로 줄여 불렀다.

경복궁의 영추문(迎秋門) 밖에 있는 마을은 매릿골 혹은 매동(梅洞)이라 부르고 창성동과 통의동 사이에는 띠(帶)를 만드는 집이 있다 해서 띠골·대동(帶洞)으로 불렀다. 또 영추문과 마주 보는 곳, 매동의 아래쪽은 서문동(西門洞)으로 불렀다.

현재 통의동은 북쪽으로 창성동과 연결되어 있고 동쪽은 효자로를 경계로 세종로의 경복궁과 마주 보고 있다. 남쪽은 적선동, 서쪽은 자하문길을 경계로 통인동과 체부동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동의 동쪽에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이 있으므로 궁궐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영조의 잠저인 통의동 35번지 창의궁 자리는 동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910년 이후 도시계획에 따라 비교적 반듯반듯하게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자하문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가로변에 상업지대가 구성되어 있다.

○ 통의동 키워드

창의궁 터 / 관상감 터 / 사재감 터 / 대루원 / 백송동 / 흰소나무골 / 매릿골

금부 직방 터 / 서금교 터 / 금천교 터 / 창의궁 우물 / 동양척식주식회사 추사 김정희

체부동

체부동은 북쪽으로는 통인동(通仁洞), 동쪽으로는 통의동(通義洞), 남쪽으로는 내자동(內資洞), 서쪽으로는 필운동(弼雲洞)과 접해 있다. 조선 초기에 한성부 북부 순화방(順化坊), 1751년(영조 27)에 한성부 북부 순화방 사재감계(司宰監契)에 속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한성부 북서(北署) 순화방 하패계(下牌契) 구곡동(九曲洞)·체부동(體付洞)·누각동(樓閣洞) 등이 체부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에 한성부 북서 순화방 하패계 구곡동·체부동과 누각동 일부가 통합되어 체부동이 되었다. 1936년 4월 동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되면서 체부정이 되었으며, 1943년 4월 구제(區制) 시행으로 종로구 체부정이 되었다.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뀌면서 체부동이 되었다. 법정동인 체부동은 행정동인 사직동(社稷洞) 관할 하에 있다. 체부라는 지명은 체찰사부 또는 체부청이 있었다는 데 연유한다.

구곡동, 누각동 등의 자연마을과 다리인 금천교(禁川橋)가 있었다. 구곡이란 명칭은 마을이 아홉 굽이나 꾸불꾸불한 곳에 있다는 데 연유하며, 금천교는 고려시대 충숙왕 때 가설된 적선동(積善洞), 통의동, 내자동 등으로 통하는 십자로에 있던 돌다리였는데 복개공사로 매몰되었다.

- 체부동 키워드
홍종문 가 / 금천교 터 / 구곡골
동농 김가진

필운동

필운동은 북쪽으로는 누상동(樓上洞)·누하동, 동쪽으로는 체부동(體府洞)·내자동(內資洞), 남쪽과 서쪽으로는 사직동(社稷洞)과 접해 있다. 조선 전기에는 한성부 서부 인달방(仁達坊) 관할지역이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 때는 인달방 내수사계(內需司契) 도가동(都家洞), 사직동계 사직동, 수성궁계(壽城宮契) 송목동(松木洞)·도가동·남정현(南征峴), 분선공계(分繕工契) 전정동(填井洞)·필운대·구동(龜洞)이 필운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도가동, 사직동, 송목동, 도가동, 전정동(填井洞), 필운대, 구동, 대구도가동(大口都家洞) 등이 통합되어 필운동으로 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출장소 제도 신설로 경성부 서부출장소 필운동이 되었다. 1936년 4월 동명이 일본식 지명인 필운정으로 되었으며, 1943년 4월 구제(區制) 시행으로 종로구 필운정이 되었다.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필운동이 되었다. 법정동인 필운동은 행정동인 사직동(社稷洞) 관할 하에 있다. 필운이란 지명은 필운대 이름에서 연유한다.

거북골(일명 龜洞), 남정동, 도가동, 대구도가동, 송목동 등 옛마을이 있었다. 거북골은 거북 모양의 거북바위가, 남정동은 남정문이, 도가동은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도가집이, 대구도가동은 대구를 파는 도가집이, 송목동(일명 소나무골)은 소나무가 많았다는 데서 명칭이 연유한다.

누상동(樓上洞), 누하동, 옥인동(玉仁洞)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 인경궁(仁慶宮)이 있었다. 인경궁은 1676년(광해군 9)~1682년에 짓다가 인조 반정으로 중단되었다. 1692년(인조 11)에 일부를 철거하여 창경궁(사

적 123) 건립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전각들은 효종 때까지 남아 있었다가 숙종과 영조 때 없어지고 민가들이 들어섰다. 12번지에는 대한제국 당시 궁내부 대신을 역임한 심상원(沈相源)의 집터가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배화여자대학, 배화여자고등학교, 배화여자중학교, 매동초등학교 등이 있다. 기념관으로는 육영수 여사 기념관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는 1997년에 설립된 아나올의 집이 있다.

○ 필운동 키워드

필운대 / 거북골 / 거북바위 / 당나귀우물 / 등과정 터 / 만리장성골 / 만리장성집 / 맨우물골 / 소나뭇골 / 성동인우애지산학 / 필운대 / 필운대 암각사 / 인경궁 / 정선의 그림 / 육강현

정조의 국도팔영

(필운대 곳곳마다 변화함을 과시하니 만 그루 수양버들에 만 그루 꽃이 로다)

백사 이항복 / 박효관 / 성임 집 / 소세양 집 / 구본웅

25

적선동

적선동의 동명은 이 지역이 조선시대 한성부 서부 적선방이었기 때문에 지명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원래 왕가의 정궁(正宮)인 경복궁에 이웃하고 또 의정부를 위시한 중요 관청과도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는 옛 글귀의 뜻을 취하여 이곳은 적선, 지금의 세종로 사거리 남측 일대는 여경이라 하였다. 적선동은 조선 초기까지 한성부 서부 인달방과 적선방에 걸친 지역이었다.

적선동은 여러 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경복궁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관아 명칭에 따른 동명이 많았다.

월궁동(月宮洞)은 월성위궁골이라고도 하는데 여조의 둘째부마(月城尉) 김한신(1720~1758)이 지냈던 곳이라 붙여진 명칭이다. 김한신의 자는 유보(幼輔)인데 13세 때 영조의 제2녀 화순옹주(和順翁主)와 결혼하여 월성위에 봉해졌다. 오위도총부 도총관제용감제조를 지냈으며 8벌의 글씨를 다 잘 써서 애시책문(哀謚冊文)을 자주 썼다.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붕어다릿골은 붕어다리가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인데 한자로는 어교(魚橋)라 하였다. 적선동 77번지 정부종합청사 부근 효자동쪽 입구에 있었는데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북어교(北御橋)로 되어 있다. 북어교에서 붕어교로, 붕어교는 다시 어교(魚橋)로 변하였다.

십자교(十字橋)는 서십자각(西十字閣) 서쪽에 형성된 마을로 서십자각 다리가 있기 때문에 십자교라 하였고, 내자동 71번지와 적선동 사이에는 종침교(踪琛橋)가 걸쳐 있었으므로 부근 마을은 종교동(宗橋洞) 혹은 종침다릿골로 불려졌다.

내자동과 적선동 경계 부근에는 장흥고(長興庫)가 있었다. 설치 당시에는 남부 호현방으로 지금의 충무로1가·회현동1가·남대문로3가 접경지대에 있었는데 후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장흥고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장흥고동·장흥동·장흥곳골로 불렸다.

한편 『한경지략』의 장흥동에는 옛날에 장흥고가 이곳에 있었고 읍취헌 박은(朴闇)의 옛 집터이며 또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의 집으로 그가

손수 심은 소나무 한 그루가 일찍부터 있었다고 한다. 일찍이 좌상(左相) 김광국(金光國)의 집으로 쓰여지기도 했는데 김광국의 집은 새로 지은 것으로 구조가 너무 사치스럽다 하여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황폐해져 말썽이 되었던 옛집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일대를 설명하였다.

사은동은 사은섯골이라 하는데 적선동 170번지에 사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근의 적선동·세종로·도림동에 걸쳐있는 마을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적선동은 북쪽으로 통의동, 동쪽은 세종로, 남쪽에 도림동이, 서쪽은 내자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직로가 동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사 위를 지나는 사직로를 경계로 북쪽은 주택지구, 남쪽은 재개발된 상업업무 중심지구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있다.

- 적선동 키워드

월성위궁 터 / 김정희 집터 / 장흥고 터 / 사온서 터
염상섭 / 김만석

26

내자동

내자동의 동명이 유래된 내자사(內資寺)는 호조(戶曹) 소속 관서이다. 고려 때부터 있어 왔던 의성고(義成庫)를 태종 3년(1403)에 내자사로 고쳤는데 궁내에 미(米), 면(麵), 주(酒), 장(醬), 유(油), 견(絹), 소(蔬), 과(果), 내연(內宴), 직조(織造) 등의 공급을 담당하였다. 『고려사』에는 내자사나 의성고가 보이지 않는 대신 내방고(內房庫)가 있다. 충선왕(忠宣王) 원년(1309)에 운진창(雲臻倉)을 부흥창(富興倉)에 합하고 의성창(義成倉)으

로 개칭하였으며 충숙왕(忠肅王) 2년에는 내방고로 고쳤다. 여기에 보이는 의성창 또는 내방고가 내자시의 전신인 의성고와 같은 관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자시의 위치에 관해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도 서부인달방에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처음 창설 때부터 조선 말기에 폐지될 때까지 같은 장소인 지금의 내자동역 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역국으로 개편하기도 하였지만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도렴서로 복원하여 말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조선에서도 고려시대의 직제, 임무 등을 그대로 계승하여 한양천도 후에 도렴서를 궁궐에서 가까운 이곳에 설치하였고, 70여 년 세조 6년(1460)에는 중부수진방(壽進坊)에 있는 제용감(濟用監)에 병합되었다.

1914년 동리구역을 조정 개편할 때에는 도렴서가 있는 일대의 마을인 도렴동, 공조(工曹)의 뒤가 되므로 공후동(工後洞) 혹은 공조뒷골이라 불렀다.

적선동 170번지에 궁중에서 필요한 술과 감주를 공급하는 관아가 있었고, 그 주변의 부락은 사온동(司醞洞) 혹은 사온섯골, 의영고가 있던 주변의 마을은 의영곳골 혹은 의영동(義盈洞)의 구역을 합하여 도렴동을 신설하여 지금에 이른다.

현재의 도렴동은 북쪽으로 내자동길을 경계로 하여 적선동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당주동, 서쪽으로 내수동, 동쪽은 세종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모양의 지형이다. 동(洞) 면적의 60% 이상이 세종문화회관의 주차장과 경희궁 시민공원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 생활주거 면적은 30% 정도밖에 안된다. 도렴동 45번지에는 교통방송국이 위치해 있다. 『한경지략(漢京識略)』과 『동국여지비고』의 내자시조의 기사(記事) 말미에 모두 금폐(今

廢)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고종 이전에 폐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국여지비고』에는 ‘금폐’라는 기사 아래 유권초각(有捲草閣)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때에 내자시는 폐지되었지만, 그 청사건물 중의 하나인 권초각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일 내자시의 역사를 말하여 주고 있던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자시의 관장업무도 『여지승람』이나 『한경지략』 등에서 모두 『동국여지비고』의 기사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여 그 변동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내자시의 관원은 조선 초에 정(正3品), 부정(從4品), 첨정(從4品), 판관(從5品), 주부(從6品), 직장(從7品), 봉사(從8品) 각 1명씩을 두었으나 조선후기에 와서 감축되다가 고종 19년(1882)에 내자시가 폐지된 후에 이 일을 사옹원(司饔院)에서 장악하게 되었다.

내자동을 이루고 있는 부락으로는 고간동·곡정동·남정동·전립동·사직동·은행동·장흥동·종교동·창림동이 있었다. 고간동(古澗洞)은 장흥교의 공간이 있으므로 공간골이라고도 하였다. 남정문(南正門)골은 내자동과 필운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남정문재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혹은 남정동이라 하였다. 남정문재는 내자동 277번지 부근에 있던 고개로 남정문이 있어 남정문재, 한자명으로 南正峴(南征峴)이라 하였다. 전립동(戰笠洞)은 병거지를 만드는 집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병거짓골이라고도 하였다. 곡정동은 금천교 쪽에 있는 마을로 굽은 우물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직동 쪽의 마을은 사직골, 은행나무가 있던 부락을 으능나뭇골 혹은 은행동이라 불렀으며 내수동과 연결되는 곳에 있는 마을은 종침다릿골이라 하였다. 또 옛날 도렴동계(都染洞契)와 대창동계(大昌洞契)가 있던 부분의 부락은 창림동이라 불렀다.

내자동은 북쪽으로 체부동, 동쪽으로는 적선동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내자동길을 경계로 내수동과 마주 보고, 서쪽은 필운동과 이웃하고 있다. 사직로(社稷路)가 동쪽 북쪽 3/4 지점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내자동은 비교적 주거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자동을 통과하는 가로는 사직로와 내자동길이 있다. 사직로는 동십자각에서 사직공원을 거쳐 독립문에 이르는 폭 30m, 연장 1,500m로 울곡로·세종로·의주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내자동길은 종합청사 남단으로부터 내수동을 거쳐 사직공원에 이르는 가로명으로 폭 20m, 연장 700m로 세종로와 사직로를 연결한다.

내자동은 세종로(世宗路)와 연이은 중심지로서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 내자동 키워드
곳갓골 / 남정문골 / 병거짓골 / 종침다릿골 / 남정문재

3 서촌 지역 내 기존 지명,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상업시설 상호로 사용한 사례 조사

3.1 상업시설 상호 중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업소

2014년 12월 조사된 서촌 지역 상업시설 상호 중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업소는 아래와 같다(행정동 명칭별 많은 순 정렬).

효자골프샬 종로구 창성동 122-13

효자김밥 종로구 통인동 98-1 통인시장

효자동물병원 종로구 효자동 31
효자동 두오모 종로구 효자동 40-2
효자동맛집 종로구 통인동 149-13
효자동며느리 종로구 체부동 24
효자동목고기 종로구 효자동
효자바베 종로구 체부동 210-3
효자분식 종로구 신교동 10
효자베이커리 종로구 통인동 43-1
효자동소금구이 종로구 적선동 97
효자왕족발 종로구 통인동 147-12
효자동이발소(폐업) 종로구 통인동 46-14
효자태권도체육관 종로구 통인동 149-5
효자떡집 종로구 통인동 98-1 통인시장
효자동초밥 종로구 통의동 59
효자한의원 종로구 효자동 58
건축사사무소효자동 종로구 청운동 39-6

청운공사 종로구 청운동 74-1
청운반점 종로구 통인동 114
청운동남원추어탕 종로구 청운동 94-2
청운실버센터 종로구 청운동 89-12
청운어린이집 종로구 청운동 6-3
청운미용실 종로구 신교동 36-3
청운설비공사 종로구 청운동 49-2
청운효자동열쇠 종로구 청운동 50-36
청운제일학원 종로구 신교동 52
청운문화스포츠센터 종로구 청운동 123

청운현대아파트 종로구 청운동 56-45
청운문학도서관 종로구 청운동 4-20
청운벽산빌리지아파트 종로구 청운동 1

옥인상점 종로구 옥인동 156-7
옥인상영관 종로구 옥인동 47-17
옥인피자 종로구 옥인동 155
옥인교회 종로구 옥인동 18
체부동교회 종로구 체부동 188
체부동빈대떡 종로구 체부동 190
체부동술집 종로구 체부동 28-2
체부정육점 종로구 체부동 54

사직동그가게 종로구 사직동 1-7
사직분식 종로구 필운동 18-95
사직아파트 종로구 사직동 1-8

누하우동초밥 종로구 누하동 77-13
누하의 숲 종로구 누하동 45-2
카페 누하191 종로구 누하동 191

누상어린이집 종로구 누상동 54
적선동술집 종로구 적선동 22
창성갈비 종로구 창성동 136
통인시장 종로구 통인동 10-3
통의도시연구소 종로구 통의동 67-1

상업시설 상호 중 서촌 명칭을 사용한 업소

2014년 12월 조사된 서촌 지역 상업시설 상호 중 서촌 명칭을 사용한 업소는 아래와 같다.

- 서촌재 종로구 누상동 4-2
- 서촌산책 종로구 옥인동 155-1
- 서촌한의원 종로구 효자동 25
- 서촌계단집 종로구 내자동 11-1
- 서촌돌솔 종로구 통인동 147-13
- 서촌갤러리 종로구 효자동 40-2
- 서촌갤러리카페 종로구 창성동 138-2
- 서촌라튀떡 종로구 통인동 37-2
- 서촌차고 종로구 통인동 74
- 서촌빈대떡 종로구 통의동 55
- 서촌 호프 종로구 체부동 30
- 서촌호프광장 종로구 통인동 147-2
- 서촌강정치킨 종로구 통인동 147-2
- 서촌한약국 종로구 통인동 137-9
- 서촌국시 종로구 창성동 98-19
- 서촌방향 종로구 체부동 25
- 서촌친구네 종로구 체부동 214
- 서촌단호박국수 종로구 필운동 106
- 서촌꽃다방 종로구 누하동 32
- 서촌 181 종로구 체부동 181
- 서촌일일 종로구 누하동 26
- 서촌마루 종로구 누하동 3

서촌 비앤비 스타란 종로구 옥인동 157-2 2층
서촌교회 서울 종로구 누하동 34-1

33 상업시설 상호 중 세종마을 명칭을 사용한 업소

2014년 12월 조사된 서촌 지역 상업시설 상호 중 세종마을 명칭을 사용한 업소는 아래와 같다.

세종게스트하우스 종로구 옥인동 178-35
세종표구 종로구 청운동 144-1
세종마을 치킨 종로구 체부동 194-2
세종마을가맥 종로구 체부동 194-2
세종아파트 종로구 옥인동 56
세종마을어린이집 종로구 옥인동 184

34 상업시설 상호 중 지역의 문화재, 자연 유산 등의 명칭을 사용한 업소

2014년 12월 조사된 서촌 지역 상업시설 상호 중 지역의 문화재, 자연 유산 등의 명칭을 사용한 업소는 아래와 같다.

광화문커피 종로구 통인동 35-11
경복궁아트홀 종로구 효자동 70-1
누각 종로구 누상동 166-118
백송 종로구 창성동 153-1
인왕목욕탕 종로구 통인동 147-4
인왕세탁소 종로구 신교동 10
인왕축산물도소매센터 종로구 누하동 77-4
인왕분식 종로구 신교동 35번지

자교교회 종로구 창성동 156
자교유치원 종로구 창성동 156
종로프라자약국 종로구 옥인동 19-33
체부동잔치집 종로구 체부동 190
황학정 종로구 필운동 164

35 공인중개사 업소 상호 중 지역 명칭을 사용한 업소

2014년 7월 24일 조사된 서촌 지역 내 공인중개사 업소는 총 45개이며, 이 중 동명 또는 지역 명칭을 상호에 사용한 업소는 10개로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인왕부동산중개인사사무소 종로구 옥인동 40-2
서촌공인중개사 종로구 필운동 155
누하동물푸레공인중개사사무소 종로구 누하동 53-2
옥인공인중개사사무소 종로구 누하동 35
사직공인중개사사무소 종로구 사직동 9
경북공공인중개사사무소 종로구 신교동 57
효자공인중개사사무소 종로구 창성동 135
서촌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종로구 통의동 35-84
세종마을공인중개사사무소 종로구 체부동 195
청운상록수공인중개사사무소 종로구 청운동 52-38

정책 건의

- 1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2 일제의 주소 체계 개편 이전 한글 지명 활용 방안 연구
- 3 상업시설 간판 작명 가이드라인 제안

V 정책 건의

1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연구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촌 지역의 도로명은 적절하지 못한 명칭 부여 및 행정 편의를 위해 도로명의 개수를 줄이는 등 지역의 15개 법정동의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1 필운대로 VS 필운대로, 송석원로, 선희궁로

서촌 지역 내 매동초등학교-서울농학교를 잇는 길은 필운대로로 명명되어 있으나 <종로구 도로명 등 주소 체계 정비 용역> 전에는 필운대길, 송석원길, 선희궁길로 세 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어 있었음을 용역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필운대길은 인접한 백사 이항복의 집터 필운대를 따서, 송석원길은 인접하여 있던 조선시대 옥계시사의 주도자인 천수경의 집 이름인 송석원을 따서, 선희궁은 인접한 선희궁터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로구간 통합, 도로위계 변경을 이유로 이 도로명은 필운대길로 통합되었다. 지역의 역사성 보존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되며 필운대로, 송석원로, 선희궁로로 분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1.2 자하문로 VS 청풍길

서촌 지역 내 청운초등학교 후문-인왕산을 잇는 길은 자하문로로 명명되어 있으나 <종로구 도로명 등 주소 체계 정비 용역> 전에는 청풍길로 명명되어 있었다. 이는 선원 김상용의 별장인 청풍계(淸風溪)를 따서 붙인 이름이었으나 이용자들의 편리함과 위치 예측성을 이유로 인지도 높

은 도로명(자하문로)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역의 역사성 보존의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청풍길로 바꾸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2 일제의 주소 체계 개편 이전 한글 지명 활용 방안 연구

서촌 지역 내에 조선시대 사용하던 지명 중 일제에 의해 훼손된 한글 지명들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1 지명 적용: 새다릿골, 자하골, 구곡골

새다릿골은 신교 소방서와 궁정동 9번지 사이를 연결해주던 새로 만든 다리가 있어 새다릿골이라고 불렸다. 자하골은 골이 깊고 수석이 맑고 아름다워서 선경에 비교되고, 또 개성의 자하동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곡골은 현재의 체부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골목이 아홉 구비로 구부러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한글로 되어 있고, 지역의 역사성이 반영된 이와 같은 지명이 오늘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2 스토리텔링: 뗏골, 흰갯골, 만리장성골

서촌 지역 내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지명 중 스토리텔링 활용이 가능한 지명을 발굴해 이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뗏골은 통의동·창성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이곳에 떠를 만드는 집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흰갯골은 현재의 효자동·창성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경복궁 가까이에 있던 이 동네에서 흰 털을 가진 개를 많이 길렀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만리장성골은 필운동·누하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담이 성처럼 길게 뻗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만리장성골의 담은 광해군 때에 인왕산 아래에 지었던 인경궁의

답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한글로 된 지역의 옛 지명들은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된다. 이러한 고유 지명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3 **상업시설 간판 작명 가이드라인 제안**

지역 내 상업시설의 간판 작명 시 지역의 역사성과 기존 지명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자료 제작이 필요하다. 구청, 세무서 등과 협조하여 창업에 관한 자문을 구할 시 지역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해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업체 명을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지명과 스토리를 담은 상업시설의 간판은 방문객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하며 지역의 역사성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길부, 1985, 향토와 지명, 정음사
- 강명관, 2009, 사라진 서울, 푸른역사
- 국립중앙도서관, 2010, 고지도를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김기빈, 1995, 일제에 빼앗긴 땅 이름을 찾아서, 살림터
- 김영상, 1989, 서울육백년, 한국일보사
- 대통령경호실, 2007, 청와대와 주변 역사문화유산
- 배우리, 1994,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토담
- 서울역사박물관, 2004, 바위글씨 전,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0, 서촌: 사람들의 삶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0, 서촌: 역사 경관 도시조직의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연구원, 2012, 서촌지역 정책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안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이은식, 2010, 지명이 품은 한국사, 타오름
- 종로구, 2008, 종로600년 동명 변천사 및 바뀐 지번 안내, 종로구
- 종로구청, 2009, 종로구 도로명 등 주소체계 정비, 종로구청
- 종로문화원, 백악산의 어제와 오늘, 2014, 종로문화원
- 종로문화원, 인왕산의 어제와 오늘, 2013, 종로문화원
-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2013, 길거리에 내몰린 땅주소 월례정책포럼 자료집
- 최종현, 김창희, 2013, 오래된 서울, 동하
- 한글학회, 1965, 한국지명총람 1권 서울편, 한글학회
- 허경진, 2012, 문학의 공간 옛집, 보고서

서울연 2014-CR-22

사라져 가는 서울 지명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서촌을 중심으로

발행인 김수현

발행일 2015년 1월 1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비매품 ISBN 978-89-8052-000-0 000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